

맞이하기

- *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며 가장 힘들었던 일 한 가지와 가장 감사했던 일 한 가지를 나누어봅시다.
- * 지난 주 함께 기도한 제목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나누어 봅시다.

말씀요약

- * 설교본문과 설교요약을 읽습니다. (bit.ly/31moim)

은혜 나누기

- * 말씀을 들으며 가장 와 닿았던 내용이 무엇인지 나누어 봅시다.
- * 말씀을 통해 새롭게 알게 된 것, 감사하게 된 것이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
- * 오늘 나눈 말씀이 내가 살아가는 방식에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까? 말씀을 의지해서 도전할 부분은 무엇인가요? 예상되는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성경일독 프로젝트 '우리 함께 일독해'에 어떻게 참여할지 나누어 봅시다.
 - 하나님은 말씀으로 성도를 성장케 하십니다. 나는 영적 어린 아이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말씀을 통해 자라날 수 있을지 생각해 봅시다.

함께 기도하기

- * 이번 한 주 어떤 삶을 기대하십니까? 구체적인 기도제목 한 가지를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합시다.
- * 공동체를 위한 기도제목들을 공유하며 기도합시다.

들어가며

<삼일의 7가지 DNA> 다섯 번째 주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일하시게 하라’입니다. 본문은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과 밀레도에서 만나 나뉘던 고별인사를 그리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3년 가까이 머물며 가르쳤던 만큼 각별한 애정을 가졌던 교회였습니다. 이제 앞으로 다시 보지 못할 교회 지도자들을 만나 바울은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의탁합니다.

1.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의 선물이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의 마지막 인사에서 여러 가지 당부할 일들도 많았을 것이고, 그간의 여러 소회도 나누어야 했을 것입니다. 실제로 에베소 장로들을 향해 남긴 말이 꽤나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행 20:18-35). 그런데 이 긴 이야기를 요약하는 단 하나의 구절을 뽑는다면 32절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들을 그리고 그 교회를 하나님과 그 말씀에 맡깁니다. 바울은 특히 그 말씀을 ‘은혜의 말씀’이라고 표현합니다. 은혜는 선물이란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백성들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구약 이스라엘의 모세도 주의 발아래에서 주의 말씀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이 누리는 특권이라 말하였습니다(신 33:3).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그의 손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기 위해 그분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에 주어진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관념이나 이론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살리시는 실제적인 능력이 되십니다. 무엇보다 인생의 고난 길에 있는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는 주님의 말씀 밖에 없습니다. 시편의 시인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주님의 말씀만이 자신을 일으키고 살리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주님의 말씀만이 절망으로 가득 찬 어두운 인생 길 가운데 소망을 약속하시기 때문입니다(시 119:49-50).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는 인생이 복됩니다.

2.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를 성숙과 성장으로 이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를 든든히 세우시고, 기업을 상속하게 하실 것을 확신하였습니다(32절 하). 하나님은 이를 위해 그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주의 말씀을 주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전하고 가르칠 수 있는 말씀의 봉사자들을 교회에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가르침을 통해 온전하게 자라난 성도들의 섬김을 통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나가도록 하십니다(엡 4:11-12).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기르시는 도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말씀을 믿고 배우는 것을 통해 영적인 어린 아이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고 온전한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야 합니다(엡 4:13-14). 영적 어린 아이들은 세상의 풍조에 쉽게 휩쓸리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해져가는 이들은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자신의 삶과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며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말씀에 깊이 뿌리내린 인생은 요동하는 세상에서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이제 올 한해 모든 성도가 하나의 호흡을 가지고 성경을 일독하는 것을 목표로 한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삼일 성도라면 누구도 예외 없이 이 기회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일하시는 경험을 하게 되길 소원합니다. 삼일교회 가운데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공동의 기억을 남게 되길 바랍니다.